

다니엘 K. 다르코 박사, 감옥서신, 세션 22, 은혜로 구원받는다, 에베소서 2:1-10

© 2024 댄 다르코(Dan Darko) 및 테드 힐데브란트(Ted Hildebrandt)

감옥서신에 대한 강의 시리즈에서 댄 다코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22, 은혜로 구원받는 것, 에베소서 2:1-10입니다.

감옥서신에 대한 성경 연구 강의 시리즈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연구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기뻐고 영광이었습니다. 지난 몇 번의 연구에서 우리는 에베소서에서 집중했고, 아마도 이 서신의 서론과 첫 장을 살펴보는 데 상당한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눈치채셨을 겁니다. 저는 지난 강의에서 멈췄던 부분, 즉 지난 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이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함,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능력을 이해하도록 기도한 것에 대한 대화를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 이 권능이 그의 몸에 주입되었고, 생명이 없는 몸이 살아났습니다. 저는 끝 부분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했던 권능, 그를 다시 살리신 권능,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키시고 모든 권세의 권세를 그 아래에 복종시키신 권능이 교회를 위해 역사하는 권능이라는 점에 주의를 환기했습니다. 이제 2장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 여러분의 생각을 움직이려고 노력하며 읽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 우리 강의의 중심 주제인 1절에서 10절까지 읽었습니다. 저는 바울이 어떻게 분위기를 조성하는지 상기시키기 위해 읽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찬양받으신다면 바울의 기도가 성취된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디에서 데려가셨고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매우 비참하고 슬픈 상태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두신 곳으로 옮겨주시는 행위를 이해하게 됩니다.

숨가쁘게 그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근거. 하지만 그 내용을 시작하기에 앞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생각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세 가지 질문인데, 이 강의의 주제는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하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럼, 이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살펴보자. 구원이 은혜로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구원받는가? 무엇으로부터 구원받는가? 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가? 구원이라는 주제를 다루는 매우 중요한 책인 에베소서에는 우리에게 이런 심각한 질문들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요즘 우리가 구원에 대해 이야기할 때, 사실, 떠오르는 것 중 하나는 제가 항상 좋은 아이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결코 나쁜 짓을 한 적이 없었고,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구원이 필요하다고 가르쳐 주셨고, 그래서 그분은 그의 아들을 보내 저를 위해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때, 마치 그리스도께서 아무것도 없이 죽으신 것과 같습니다. 사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여 그저 춤추거나 박수를 치거나 손을 들거나 교제를 나누거나, 혹은 교회 예배 후에, 아마도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 교제 홀에 가서 커피를 마시고, 맛있는 영국 머핀을 먹고, 그 후에 길을 떠나는 것과 같은 은혜를 베푸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았을까요?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그것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생각해 볼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인간은 우리가 사는 문화의 지시에 얼마나 종속되어 있을까요?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았는지 생각하면서, 또한 다음 질문을 해 봅시다. 우리가 사는 문화, 우리가 사는 사회가 우리를 형성하고,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우리가 사는 삶의 흐름을 감지하고 있을까요? 그렇다면 구원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의 지시에서 구원하시는 영역으로 올라가는 것이 정당하고 정당하고 중요한 것일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생각해 볼 다음 질문입니다.

당신은 잠시 당신의 쾌락이나 욕망이 당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시다시피, 이 말을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였습니다. 당신의 쾌락이 당신을 지배할 때 어떻게 당신이 자유롭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사실, 소크라테스의 질문은 여기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쾌락이 당신을 지배한다면, 술에 대한 욕망, 섹스에 대한 욕망, 무엇이든에 대한 욕망, 음식에 대한 욕망, 세상이 끌어당기는 무엇이든에 대한 욕망이 당신을 지배한다면, 당신은 그런 것들의 노예가 아닙니까? 하지만 당신의 쾌락, 또는 화려해 보이는 바울의 언어가 당신을 어느 정도 지배하며,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구원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또는 다르게 표현하자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이 그것으로 올라가는 것입니까? 저는 당신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셨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런 것들로부터 구원하지 않으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당신을 생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또 다른 심각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양 청중에게는 이 질문이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이 강의 시리즈를 따라가는 비서양 청중에게는 이 질문이 조금 더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악한 영적 권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을 인간에게서 빼앗을 수 있다고 믿습니까? 그리고 구원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악한 영적 권세들의 통제와 강력한 영향력에서 구원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실제로 믿습니까? 이제 에베소서로 돌아가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이 더 많이 생각하도록 더 많은 질문을 던져도 될까요?

악한 영적 권능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다면 어떨까요? 그것은 당신의 구원이 제한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보시다시피,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하고 풍부한 신학적 단어인 은혜를 준 바울이 하나님의 권능을 생각하고 경험하는 방식의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제가 제기한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생각하면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을 살펴볼 것입니다.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썼습니다. 너희는

전에 이 세상의 풍속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왕,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따랐던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었느니라. 우리가 다 전에는 육체의 정욕에 따라 지내며 몸과 마음의 욕심을 행하였고 본래 진노의 자녀였더라.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풍부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으로 우리가 허물로 죽었을 때에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와! 그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8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여러분 자신의 행위가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특정 구절에 대한 몇 가지 주요 구조적 사항을 알려드리고, 그런 다음 하나하나 풀어서 모든 줄을 주의 깊게 읽거나 살펴보겠습니다. 이 특정 구절의 문자적 구조에서 두 문장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2장 1절에서 10절은 그리스어로 두 문장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독자들의 기독교 이전 과거에 대해 글을 쓰기 시작할 때, 그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일어난 일을 말할 때까지 문장을 끝내지 않으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 7절은 바로 이어지고, 바울은 그 끝에 괄호로 묶은 진술을 남겨서,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상태에 있던 사람들에게 왔다는 것을 나타내고 보여줍니다. 여러 문장으로 된 영어로 읽으면, 실제로 바울이 여기서 전달하려는 의미를 전달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1절에서 7절만 봐도 그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멈추지 않을 거고, 여기서 문장을 끝내지 않을 거야. 그들이 내 말을 다 마쳤다고 생각할까봐. 이런 부정적인 분위기로 끝낼 필요는 없어. 내가 가장 중시하는 것은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위대함에 더 가까이 데려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험하기 전에 하나님의 진노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진노라고 불렀던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8절에서 10절은 구원과 우리가 구원을 어디서 얻는지에 대해 강조할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 교리, 특히 우리가 구원론이라고 부르는 교리의 일부는 이 구절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풍부한 신학적 텍스트이며, 저는 우리가 그것의 세부 사항과 그 의미를 진지하게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2장 1절에서 3절은 특히 기독교 이전의 과거에 초점을 맞춥니다. 바울은 우리가 어디에 있었는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하고, 그때와 지금의 대조를 사용합니다. 우리는 그때 있었지만 지금은.

사실, 에베소서 2장 전체에서 그 반복적인 패턴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이랬지만, 지금은 이렇습니다. 1~3장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교 이전의 과거는 좋은 소식이 아니라고 상기시킵니다.

우리는 나중에 더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4절에서 7절까지, 앞서 언급했듯이, 1절부터 시작하는 같은 문장을 기억하세요. 4절에서 7절까지, 그는 실제로 과거에 한 말과 날카로운 대조를 이루며, 우리의 삶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신의 개입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줍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두 번째 문장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요약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류에게 다가오셔서 우리가 처한 상태를 주셨는가. 이 두 문장에서 우리가 번역하는 그리스어 단어인 '걷다' 또는 '살다'가 문장의 시작과 마지막 구절에서 어떻게 끝나는지 주목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 없이 살았던 삶의 방식을 보여주고 그리스도인이 살도록 만들어진 삶의 방식을 반영하거나 상기시키는 것으로 끝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2장 1절에서 3절까지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 열정적으로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너무 빨리 간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면서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2장 1절, 여러분은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여러분은 본래 이 세상의 풍속을 따라

행하였고 공중의 권세 잡은 왕을 따라 행하였습니다.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입입니다. 우리 모두가 본래 육체의 정욕에 따라 살았고 몸과 마음의 욕심을 행하였으며 본래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전의 삶의 방식의 본질은 무엇이었을까요? 글썄요, 그것은 죽음의 상태였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은유는 생명이 없는 상태 또는 진정한 삶의 감각입니다. 우리는 죽었고, 죄의 영역에서 죽었고, 갇혔습니다.

이 두 단어는 실제로 우리가 처한 상태의 광대함을 강조하기 위해 중복해서 사용되었습니다. 우리는 죽었고, 갇혔고, 실제로 죄와 범죄의 비참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죽음의 삶이 어떻게 살았는지 설명할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이 속박의 삶이었다고 계속 말할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 없는 삶이 살아진 세 가지 구체적인 영역을 강조합니다. 그것은 실제로 이 세상의 시대에 따라 사는 삶이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질문했던 걸 기억하시나요?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삶의 방식을 얼마나 지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바울은 그리스도 없는 삶은 이 세상의 지시에 따라 사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쾌락, 세상의 욕망, 세상이 멋지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멋지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스스로를 파괴할 때, 그들은 자신이 즐겁다고 생각하는 정도까지요.

사람들이 병원 침대에서 삶을 마감하고, 육체적 죽음을 맞고, 어떤 종류의 정신 질환을 앓게 하기 위해 많은 돈을 쓸 때, 즉 약물을 사는 것과 같은 모든 것을 할 때, 그들은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이 멋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이 세상의 흐름에 따라, 이 세상의 시대에 따라 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삶은 세상에 의해 지시되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잠깐 멈춰서서 물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이 이러한 연구를 따르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이 여전히 사회가 선하다고 부르는 것에 의해 영향을 받고 지시받는 곳에 있는 것을 발견합니까?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사는 올바른 삶의 방식으로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에 의해 영향을 받고 지시받는 곳에 있는 것을 발견합니까? 그것에 대해 생각해보세요. 바울은 이것이 또한 육신에 따라 사는 삶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유대인인 자신조차도 모두가 이것에 복종하고, 그들의 정욕에 복종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열정은 그들이 삶을 사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고 지시했습니다. 제가 앞서 던진 질문을 기억하십니까? 제가 당신에게 준 소크라테스의 인용문을 기억하십니까? 당신의 열정과 욕망이 당신을 지배할 때 어떻게 당신이 자유롭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오, 여기서 좋은 질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곧 당신의 열정이 당신을 지배하고 세상이 당신을 지배하고 당신의 육체와 육체적 욕망이 당신의 삶의 방식을 지시할 때에도 희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은혜가 있고 자비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 아닙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사실, 그리스도교 이전의 과거는 권세와 통치자들의 지시에 따라 살았던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의 삶을 지배하는 악한 영적 권세들이 있습니다.

에베소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 특정 서신의 서론에 대한 토론을 살펴보는 데 2시간 정도를 보냈고, 여러분에게 몇 가지 배경 문제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들은 항구 도시와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사치스러운 삶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종교 활동으로 가득 찬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법과 모든 형태의 영적 힘과 그 영향력이 있는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없는 삶도 살아진 삶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그가 사용한 언어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언어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 진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전에 이 세상의 행실을 따라 걸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제사장,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따랐습니다. 우리 모두는 전에 육체의 정욕에 따라 살았고 몸과 마음의 욕망을 행했으며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본성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글쎄요, 이 구절에서 이러한 것들 중 일부를 조금 더 자세히 풀어보죠.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단어를 살펴보죠. 그리고 저는 한 주석가인 링컨이 한 말을 인용해서 죄와 허물로 인한 죽음의 은유에 대한 이 모든 의미에 대한 구약의 배경을 설명하고, 구약 밖에서도 이것이 널리 퍼져 있었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링컨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대교 밖에서 스토아 학파 작가들은 죽음이라는 용어를 비유적인 의미로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람의 가장 높은 부분, 즉 정신이나 영에 속하지 않는 것은 살아 있다고 묘사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동물 세계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고 신성으로부터 그를 분리하는 것은 죽은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인간이 예의에서 벗어나 동물적 행동이라고 특징지어지는 삶을 살기 시작할 때 스토아 학파가 말하는 가혹한 말 중 일부를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어제 에픽테토스를 읽었는데, 이 철학자들의 글을 읽고 그들이 얼마나 종교적인지 살펴보는 것은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이교도적 틀 속에서도 합리적인 인간으로서 기대에 부응하지 않는 삶은 죽음의 삶이라고 재빨리 말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전에 우리가 있던 곳이 바로 그곳이며, 우리가 말하는 모든 불신자들이 있는 곳이 바로 이 세상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시대는 학자들에게 몇 가지 논의점을 제공합니다. 왜냐하면 시대로 번역된 그리스어 단어는 때때로 우리에게 많은 추측이나 선택을 남겨두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단어는 맥락에 따라 다르게 번역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를 나타내는 단어의 경우, 제가 소유한 영어 표기법을 사용했고, 영어 사전에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약간의 속임수를 써서 그리스어를 몰래 넣어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소유한 단어인 나이는 때때로 시간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시간이나 시간 틀을 말합니다. 때로는 특별한 우주적 이해를 가지고 있어서 영적이거나 어떤 우주적 힘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시간적 용법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로 넘어가 에베소서 2장 7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에베소서와 다른 곳에서 바울이 그 단어를 특별한 우주적 뉘앙스를 나타내는 데 사용한 것을 찾을 수 없습니다. 고전 그리스어와 다른 그리스어 본문에서 그 단어가 우주적 영역으로서 시대를 나타내는 어떤 특별하거나 우주론적 세계관의 개념을 나타내는 데 사용된 것은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시대는 추상적인 영적 형이상학적 영역인 시대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불신자 였을 때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실제로 이 세상의 시대에 따라 살았다고 말하는 것은 그들이 살고 있는 세상의 지시에 따라 살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사는 세상의 기준에 따라 살았습니다. 그들의 시간 틀은 그들이 사는 방식을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동료 중 일부가 이것을 설명한 방식을 좋아합니다.

제 멘토였던 클린트 아놀드는 실제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세상의 시대는 우리가 살고 있는 건강하지 못하고 불경건한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환경입니다. 그것은 동료 압력, 이념적 체계,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과 그의 목적에서 완전히 분리된 삶을 사는 대본을 제공하는 구조의 형태로 조직된 악을 나타냅니다.

저는 어느 나라에 있든 이 세상의 시대에 따라 사는 것이 정치적 사업의 형태, 즉 캠페인이나 다른 어떤 것이 있을 때 가장 잘 보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보다 정당을 더 많이 전도합니다. 이 세상의 시대에 따라 사는 것도 매우 흥미로워집니다. 특히

제가 아프리카에 있을 때 정치인들이 기독교인의 도덕적 이상이 무엇인지, 무엇을 강조하고 무엇을 강조하지 않는지, 그리고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강조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끌어내는지 보는 것은 매우 흥미로워집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여전히 뛰어넘어가서 오, 우리는 당신 편이라고 말하고 기독교인 편에 있는 한두 가지를 강조하고 경건한 편에 있는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여섯 가지, 일곱 가지, 여덟 가지, 아홉 가지, 열 가지를 남겨둡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생각과 정신을 사로잡는 고유한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기독교 이전의 삶에서 우리의 삶은 그것에 의해 소모되었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경건한 것과 경건하지 않은 것을 구별할 도덕적 판단력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또한 이 첫 번째에서 세 번째까지 제가 조금 풀어야 할 또 다른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것은 공중의 권세의 통치자라는 단어입니다.

제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아프리카인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인이 이 글을 읽고 오, 맞아요, 맞아요,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히 이해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하는 방식이 매우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견한 아프리카 기독교인의 함정은 우리가 에베소서를 읽기 시작하면 갑자기 제 친구, 목사님과 학생들이 사방에 악마가 있는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디서나 묶고 잃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그런 죄를 지었을 수도 있습니다. 한 학생이 최근에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서아프리카의 한 학교에서 풀을 가르쳤을 때, 그는 이 부분은 우리 맥락에서 매우 현실적이기 때문에 많은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양 국가에 있는 우리에게 이 것이 도전이 되는 부분입니다. 믿지 않는 친구나 친척이 실제로 사악한 영적 권세의 통제나 지시에 복종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어떨까요? 그 사람이 구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더라도 그것을 무시할 이유를 찾을 수 있을까요? 그것에 대해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공중 권세의 통치자에 대해 이야기할 때, 바울은 에베소서 2:1-3에서 그들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우주와 인간 영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들은 천상의 영역에 있지만,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들은 영적인 존재이지만, 인간의 삶에 대한 권능과 통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2절과 3절에서 이것들이 지금 바로 일하고 있는 영적인 권세라고 지적합니다. 이것들은 현재 불신자들의 삶에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바울에 따르면, 이 악한 영적인 권세들이 존재하지 않거나 불신자들의 삶을 통제하지 않는 때가 결코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서 실제로 사람의 삶은 두 가지 영적인 힘에 의해 통제되고 중간 지점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경우,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 통제되고,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은 악한 영적 권세에 의해 통제됩니다. 저는 구원에 대한 토론이 나올 때마다 흥미롭게 생각합니다. 저는 미국에 있고, 친구들과 공유합니다.

우리가 마귀가 사람들의 삶을 조종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바울과 동의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그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어떤 행위 감각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이 잘못된 손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타협할까요? 공중의 권세를 가진 제사장들은 불순종의 의미에서 권세를 행사하는 권세자들이며, 그들은 불순종의 의미에서 그들의 권세를 행사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불순종의 의미를 불렀을 때, 이들은 불순종으로 특징지어지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틸먼이 세상의 통치자가 어떻게 일하는지에 대한 본질을 설명하고 그것이 어떻게 사악한 영적 세계의 활동과 연결되어 있는지 설명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 세상의 시대는 신에 대한 반항을 특징으로 하는 강력한 존재 양식입니다. 그것은 세상이 신에 반항하는 원인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그것은 시대와 영뿐만 아니라 육체이기도 합니다.

육신은 악을 행하려는 내적 성향과 성향입니다. 아담의 타락의 의미에 감염된 우리의 피조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것과 반대되는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우리를 추진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일하는 영이 개인적이고 깨끗한 악령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영, 곧 공중의 권세의 통치자가 불순종의 의미로 역사한다고 말할 때, 이것이 영이라고 말할 자격이 있을 때, 학자들은 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논쟁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것은 인간의 영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태도를 의미합니까? 아니면 무엇입니까? 가능한 인간의 영을 사용하든 개인에게 역사하는 영적인 힘이라고 말하든, 그것은 여전히 불신자의 삶에서 역사하는 공중의 권세의 왕자의 일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왜 당신을 겁에 질려 죽게 하려고 합니까? 당신은 바울이 당신을 겁에 질려 죽게 하려고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는 누군가가 신자가 아니거나 신자를 위해, 또는 뒤돌아보며 그들의 삶이 이 세상의 지시에 따라, 육체와 그 욕망에 따라, 그리고 이제까지 당신에게 영향을 미쳐 온 권세와 통치자들에 따라 살았다고 말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당신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무언가로부터 구원하셨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한 세 번째 질문을 기억하십니까? 당신은 당신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악한 영적 권능이 작용하고 있다고 믿습니까? 바울은 그것이 명백하다고 말합니다. 저는 종종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악령이 있다고 믿지 않는데 어떻게 성령이 있다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악한 신이 있다고 믿지 않는데 어떻게 전능한 신이 있다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 왜 우리는 선한 신, 그곳에서 일하고 우리의 선을 위해 일하는 선한 영만 있다고 믿고 싶어하는가? 우리에게 형제 자매, 형제 자매, 친구, 친척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시는 모든 선함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무시하는가. 바울은 구원받은 곳과 구원받은 조건을 기억하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는 실제로 이렇게 말한다. 알다시피, 우리는 진노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아놀드와 다른 사람들은 바울이 생각하는 방식에서 작용하는 악한 영적 세력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공중의 영역의 통치자, 마귀가 완전히 사악하고 개인과 진정한 개인의 삶에 가능한 한 많은 악을 행사하려는 지적이고 강력한 영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좋은 소식이 발생합니다.

바울이 이것을 설명할 때, 제가 1절부터 7절까지가 한 문장이라고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이전의 모든 슬픈 부분들은 그 문장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바울은 여러분이 잠자리에 들고 꿈에서 악마가 여러분을 쫓는다고 생각하지 않는 한 그것을 끝내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4절, 하지만 그리스어로 우리는 이것을 대조 접촉사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날카로운 대조를 그립니다. 당신이 이 끔찍한 상태에 있는 동안, 개입하기 위해 급진적으로 일어난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절 끝에서 바울은 실제로 이러한 조건들이 우리를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4절에서 하나님은 자비가 풍부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으로 우리가 허물로 죽은 상태였을 때에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은혜로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와 함께 일으키시고 하늘에 앉히셨으니, 이는 오는 세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의 은혜와 친절의 헤아릴 수 없는 풍성함을 보여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가 바울이 발판을 놓은 곳입니다. 와, 이게 우리의 끔찍한 과거입니다 . 하지만 연민에 빠지지 말고, 두려움에 빠지지 말고,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온갖 두려움에 갇히지 마십시오. 하지만 자비가 풍부한 하나님은 행동하기로 결정하셨고, 개입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이 생각나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시는군요. 좋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에서요.

와, 급진적인 변화네요. 급진적인 변화를 더 자세히 살펴보죠. 여기서의 급진적인 변화를 세 가지 방법으로 풀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를 실현시킨 하나님의 성품, 그 변화를 가져온 하나님의 행위,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급진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신의 행위입니다. 신의 성격, 실례합니다.

신은 부유한 신입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교회 환경에 있을 때, 이런 종류의 것에 대해 말할 때, 특히 비종파적 카리스마 교회라면, 저는 신이 부유한 신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는 아멘을 얻는다. 왜냐하면 때때로 그들은 내가 번영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다.

그러나 성격이 풍부한 신이신 하나님은 자비가 풍부하십니다. 그분은; 영어로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의 자비의 창고는 너무나 크고 강력합니다. 그분은 자비가 너무나 풍부하셔서 여러분의 죄의 정도, 이 세상 시대의 속물, 여러분을 그렇게 통제해 온 육신의 욕망, 그리고 공중의 권세의 모든 통치자들, 그리고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존엄성, 그리고 여러분의 영적 삶에 대한 모든 공격, 하나님의 풍부한 자비 안에서, 여러분이 본성적으로 그분의 진노의 대상이었을 때, 그분은 돌아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자비를 베풀기에 충분한 자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유한 신이 개입했습니다. 그는 자비가 풍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의 큰 사랑으로 인해, 그는 그의 성격에서 사랑이 풍부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데, 이는 에베소서를 생각할 때 반성해야 할 중요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에 대해 생각할 때, 때때로 우리가 얻는 개념은 우리가 죄에 대해 말할 때 하나님은 항상 사람들을 처벌할 기회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할 기회를 찾고 계십니다. 그의 성격은 자비로우십니다. 그의 성격은 사랑스럽습니다.

그가 당신에게 다가오게 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깊은 물에서 익사하거나 익사하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그리고 누군가가 당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나타납니다. 당신의 반응은 나를 내버려두고 죽게 내버려두는 것입니까? 누가 내가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반응은 감사하고, 제 손을 잡아주세요? 바울은 그의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가 우리를 위해 가지고 있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기를 기대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우리를 모든 상황에서 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바울이 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을 위해, 그는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과거는 이렇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향한 자비와 큰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링컨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넘치는 적극적인 연민이며, 그 대상의 공로에 대한 모든 생각을 배제하고 자유롭게 행사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만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가 우리를 사랑한 것은 그의 풍성한 자비와 큰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행위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이 신은 그의 성격에 자비와 사랑이 있으며, 또한 행동했습니다. 그는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그는 이것으로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그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처음에 나온 은유를 기억하십니까? 죽은 우리를 그는 죽음의 상태에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이것이 1장과 어떻게 비교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1장 1절 20절에서 그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로 제시합니다. 2장 1절, 기독교 이전 과거에는 신자들이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습니다. 1장 20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셨습니다.

2장 6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1 20절,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자기 오른편에 앉히셨습니다. 2 6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와우.

하느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신 동기는 무엇이였을까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고, 우리를 잡아 노예처럼 사용하려고 오셨나요? 아니면 무엇이였을까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그의 목적은 인류를 향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와우. 그는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분명히 밝히고 싶어했다.

그리고 그는 우리에게 친절함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이 시대에만 아니라 다가올 시대에도 그렇습니다.

이 틀을 설정하고, 우리의 과거를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그의 자비와 큰 사랑으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보여줍니다. 바울은 8

절에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 자신의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의 결과가 아니므로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작품이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되었으니, 이 선한 일은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와우. 은혜로 구원받았군요. 이 구절을 더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은혜라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의 맥락에서, 이 단어는 칠십인역에서 사용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운 접근을 표현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리고 때때로 , 그것은 다른 사람의 눈에서 발견되는 호의를 가리킵니다. 하지만 그 포괄적인 모습을 보기 위해, 구약성경의 유대적 맥락을 신약성경의 맥락으로 가져가 보세요.

죄송합니다. 고전 그리스어에서 호의를 얻는 것은 매력적인 특성, 즉 우아함입니다. 때때로 이 단어는 자비, 열등한 사람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나 자신보다 낮은 사람을 발견하고 그들을 도울 때, 그것은 은혜를 베푸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그것은 주어진 은혜에 대한 감사의 응답입니다. 에베소서에서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바울이 때때로 율법에 대한 법률적 기대에 반하는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폴에게 은혜는 아무도 받을 만한 일을 할 수 없는 호의의 감각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실, 링컨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은혜의 현실과 관대함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셨는지를 보여주는 진술 이후에 더욱 감사하게 됩니다. 은혜의 개입의 필요성은 인간이

스스로에게 맡겨지고 본성에 따라 있는 그대로 방치된 파산과 운명과 대조될 때 강조됩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독자의 주의를 구원의 의무로부터 하나님의 주권적 자유로 이끕니다. 그것은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은혜에 의한 것입니다. 그것은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율법의 행위에 의해 자격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의 행위는 인간의 노력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랑할 이유를 찾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 아닙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1절에서 10절까지의 요점을 요약하기 위해 8절에서 10절까지 실제로 확립했을 때, 그는 실제로 구원은 믿음을 통한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이 강의에서 저는 앞서 믿음을 설명하는 데 시간을 들였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믿음은 지적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에베소서 2장 8절). 구원은 행위나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선행을 위한 새로운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선행을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선행을 위한 것입니다.

이 인용문을 읽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활동의 목적은 단지 예술 작품을 만드는 것처럼 사람들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새로운 창조물은 창조주처럼 활동적이고 생산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미리 준비하신 선행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신 선행입니다. 구원은 행위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히 일을 위한 것입니다. 즉, 사는 것은 순종적이고 생산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은혜에 대한 이 논의를 마무리하기 위해, 잠깐 시간을 내어 중요한 사건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을 새롭게 해 보겠습니다.

어린 영국 소년 존 뉴턴은 영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여섯 살 때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존은 온갖 사악한 활동에 휘말렸습니다. 그는 노예선에서 복무했고, 아마도 노예 중 일부를 성적으로 이용했다고 합니다

캠피스 의 책인 라틴어로 'Imitatio Christi', 'Imitation of Christ' 를 읽다가 목숨을 바쳤다 . 39세에 존 뉴턴은 목사가 되어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 사이에 있는 작은 마을인 성 베드로와 바울의 알네이 교구 교회 등 다른 교구에서 일했다. 오늘날 알네이 의 묘지 옆에 있는 14세기 교회 벽에는 이런 비문이 새겨져 있다.

존 뉴턴 클라크는 한때 이교도이자 방탕한 사람이었으며,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부리던 종이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자비로 보존되고, 회복되고, 용서받고, 그가 오랫동안 파괴하려고 애썼던 신앙을 전파하도록 임명되었습니다. 존 뉴턴은 자신이 사람들에게 내릴 수 있는 모든 형벌을 받을 만하다고 믿었고, 자신의 죄가 너무 무겁다고 믿었으며, 이러한 효율성의 시험에서 영감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고 많은 찬송가를 썼는데, 그 중 유명한 것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뉴턴은 놀라운 은혜, 얼마나 달콤한 소리인지, 나와 같은 비참한 자를 구원했습니다. 나는 한때 길을 잃었지만, 이제 찾았습니다.

나는 눈이 멀었지만, 지금은 본다. 그것은 은혜였다. 내 마음에 두려움을 가르쳐 준 은혜, 그리고 나의 두려움을 덜어준 은혜. 그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나타났는가, 내가 처음 믿었던 그 시간.

그런 다음 그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나에게 선을 약속하셨습니다. 그의 말씀, 나의 소망은 안전합니다.

그는 나의 방패와 뿔이 되리니, 생명이 지속되는 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나는 이것을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부르는데, 왜냐하면 거기에서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좋은 그림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1절에서 3절은 우리에게 기독교 이전의 과거를 상기시켜준다.

4절에서 7절은 신의 개입을 설명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한 문장으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을 만한 것과 신이 행하신 것의 극명한 대조 속에서 말입니다 .

그는 우리에게 자비와 큰 사랑으로 그의 풍성함에서 행하셨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리석게 행동하기 위해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선행으로 특징지어지는 삶을 살기 위해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 선행은 우리가 그 안에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준비된 것으로 번역된 그리스어 단어는 장인의 이미지입니다. 그는 우리가 그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미리 건설하고 주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디에서 데려가셨는지 이해하면 바울이 믿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음 강의에서 다룰 한 가지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우리가 구원을 끝내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교회에 상기시키기 위해 무대를 마련하고 있으며, 그것은 우리가 신앙 공동체에서 서로 관계를 맺는 방식에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인종 간 정치를 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할 만한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를 공유했고, 악의 권세에 복종했으며, 육체를 통제했고, 신이 개입했습니다. 2장의 이 창만 있어도 2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나머지 토론을 따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것은 일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감사함으로 맞이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강의를 저희와 함께 따라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감옥 서신에 대한 강의 시리즈에서 댄 다코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22, 은혜로 구원, 에베소서 2:1-10입니다.